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연간보고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共感)은

2004년, 국내 최초의 전업적,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로 출발했습니다.

지난 21년간 공감은 장애인, 폭력 피해 여성, 이주민과 난민,

아동, 홈리스, 성소수자, 청소노동자,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우리 사회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수임료 걱정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친구 같은, 만만한 변호사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 희망을 그리는 길,

변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향하는 공감이 함께 하겠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24 연간보고서**

### 발행일

2025년 3월

### 발행인

김이수

### 발행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29-6 (원서동, 북촌창우극장 3층)

TEL 02-3675-7740 FAX 02-3675-7742

[www.kpil.org](http://www.kpil.org)

### 디자인

동방기획 TEL 02-2277-0365

# Contents

2024 연간보고서

- 공감** 소수자의 입장에 서서
- 인권** 구체적 삶의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며
- 법** 법으로 사회 변화를 일구고자 합니다

인사말 04

여는 글 05

사진으로 보는 공감 06

## 공감마당

인권법캠프 08 자원활동 10 포럼, 공감이 있는 저녁 12

## 공감활동

여성인권 14 장애인권 17 빈곤/복지 21 취약노동 24  
재난인권 27 성소수자 32 국제인권 35 공익법 교육/증개 40

공감이 걸어온 길 43

공감 살림살이 46

## 함께하는 사람들

기부회원 48 이사회 52 후원·자문 위원회 54 구성원 56

공감 나눔밥상 58

#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사말

김이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져 가고,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그리고 폭력의 언어가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재단법인 공감의 활동은 소중합니다. 지난 21년간 ‘공감’은 꾸준히 모든 사람이 존엄성을 지키며 사는 사회,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을 기울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변화를 이뤄내기도 하고 때로는 아쉬움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기부회원님들이 박수도 보내주시고 격려와 위로를 해주신 덕분에 더욱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공감’이 시작한 공익 활동이 씨앗이 되어 지금은 공익 활동을 하는 법률가와 법률가단체들이 꽤 생겼습니다. ‘공감’은 이런 단체들과 연대하고 협력하고 지원도 하면서 공익 활동의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공감’은 작년 역량 있는 이사진을 총원하였으며 창립 20주년 행사도 의미 있게 치렀습니다. 연말을 지나면서 새롭게 기부를 시작하는 회원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공감’의 구성원들은 기부의 뜻을 새기면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공감’, 발전하는 ‘공감’을 위해 후원해 주시는 기부회원님들, 2025년 한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다가올 20년을 준비합니다.

여는 글

## 김지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무총장

2024년은 공감이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였습니다. 지난 20년의 활동을 돌아보고 다가올 20년 공감이 나아가길 길을 그리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4월 20주년 기념행사 직전까지 약 1년에 걸쳐 구성원 모두가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할 것인지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공감의 오랜 기부회원님, 함께 연대하는 활동가와 변호사 등 약 250여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공감의 향후 20년을 위한 미래 다짐'을 발표했습니다.

인종차별, 외국인혐오적 법제와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이주인권'팀,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취약한 노동자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노동인권'팀, 정신장애인과 교차차별 사건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장애인권'팀, 재난참사에서 재난피해자의 권리가 최우선으로 논의되고 보장되는 것을 공감의 제1원칙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힌 '재난인권'팀, 반빈곤 운동단체와 함께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는 '빈곤복지'팀, 젠더기반폭력과 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피해자 곁에 함께 할 것을 약속한 '여성인권'팀, 모두가 평등하게 사랑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성소수자인권'팀, 공익인권법 교육과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에 힘쓰겠다는 '교육중개'팀,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며 공감의 이야기를 알리겠다는 '홍보'팀, 그리고 공감이 더 많은 소수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부회원과 만나겠다는 포부를 밝힌 '모금'팀까지, 미래를 향한 공감의 다짐을 짧게나마 이곳에 담으며 되새겨 봅니다.

공감의 20주년, 축하와 응원을 보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감은 늘 그래왔듯이 모든 사람이 존엄을 지키며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묵묵히 같은 길을 걷겠습니다.



사진  
으로  
보는  
공감







공감은 매년 여름과 겨울,  
 인권에 관심 있는  
 시민과 예비 법조인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인권법캠프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과 7월에는  
 각각 70여 명이 참가해 강연을 듣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인권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인권법 캠프



공감  
마당  
—  
소통과 참여





공감 39기 자원활동가

## 자원 활동

공감 40기 자원활동가





공감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자원활동가를 모집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법률 문헌리서치로 선발된  
 자원활동가들은 구성원들과 함께  
 각자의 영역에서 공감의 활동을 채워갑니다.  
 5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자원활동가들이 나눠준 땀과 열정으로  
 공감은 더 힘차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공감  
 마당  
 소통과 참여



# 포럼, 공감이 있는 저녁

‘포럼, 공감이 있는 저녁’은  
다양한 인연으로  
공감과 함께하는 이들과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해  
대중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 젠더 폭력 피해자의 이주 배경 이해

백소윤 변호사 | 2024. 03. 19.

## 가난을 증명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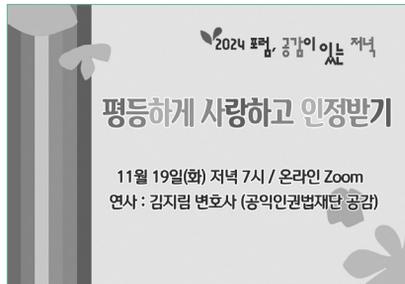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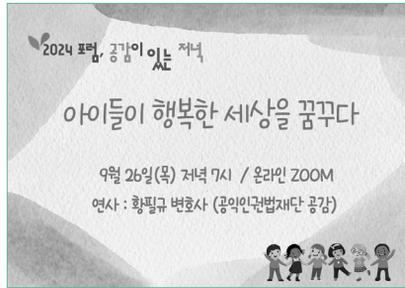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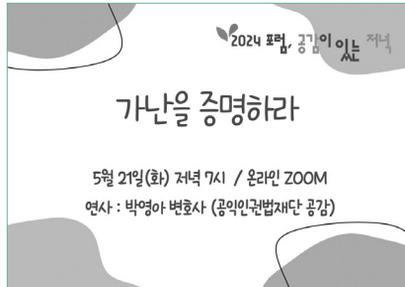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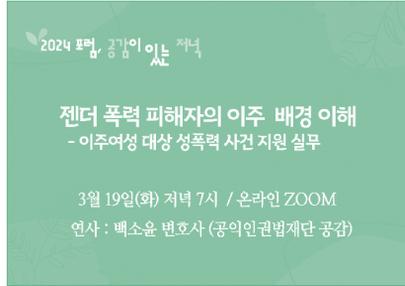
박영아 변호사 | 2024. 05. 21.

##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다

황필규 변호사 | 2024. 09. 26.

## 평등하게 사랑하고 인정받기

김지림 변호사 | 2024. 11. 19.



공감  
마당  
—  
소통과 참여

# 2

## 공감 활동



여성인권

장애인권

빈곤/복지

취약노동

재난인권

성소수자

국제인권

공익법 교육/중개

# 2

# 4

# 여성 인권

# 2

공감  
활동  
# 01

# 2

- ▶ 폭력과 착취로부터의 자유,  
여성이 인간으로 사는 출발점
- ▶ 디지털 성폭력 사건 지원 및 예방 교육

# 4

# 폭력과 착취로부터의 자유, 여성이 인간으로 사는 출발점

: 성차별·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경험 당사자 법률 지원

여성  
인권



**2024.**

이태원 유흥업소 종사 여성 6인 구술 인터뷰 자료집 발간

**2024.**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름 이태원 정기 아웃리치

**2024.**

성매매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인신매매방지법 개정 TF 활동

**2024. 01.**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폭력예방 콘텐츠 자문

**2024. 05.**

집회 참가자 대상 기습추행 사건 피해자 지원

**2024. 06.**

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국방부 전담교관 성인지 교육

**2024. 11.**

성매매 종사자 대상 위장수사 상담 및 지원

**2024. 11.**

한국성폭력상담소 젠더폭력피해자의 이주배경이해 법률교육

**2024. 11.**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실무 교육

공감은 굳건한 젠더권력 차이와 젠더 규범으로 인해 발생하고, 은폐되고, 반복되는 모든 폭력과 착취의 근절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아동, 장애 여성, 이주 여성, 성매매 경험 당사자, 성소수자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여성들이 겪는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등 여러 유형의 폭력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가능성을 모색하고, 피해자 지원 기관 및 활동가와 함께 주요 사건들의 공론화와 사회적 책임을 묻는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성폭력 사건 지원 및 예방 교육

: 온라인 공간의 특수성 반영한 피해 지원

여성  
인권



## 2024. 0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디지털성폭력예방콘텐츠 자문

## 2024. 02.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자문

## 2024. 03.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체계 연구 자문

## 2024. 07.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초등교육강의안 자문

## 2024. 10.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딥페이크 사건 피해자 지원

기술 발달로 정보통신 매체 접근성과 촬영 편집의 용이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이용한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젠더폭력도 다변화 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반성폭력 운동에 함께 하는 피해자 지원 단체들을 조력하여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 피해 처벌을 위한 제도적 한계를 검토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한편 디지털 성산업 근절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수요차단을 위한 예방교육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감  
활동  
# 02



# 장애 인권



정신장애인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판결

거주시설 내 발달장애인 기도폐쇄 사망사건 관련  
보험사 상대 소송 승소

정신장애인 가족돌봄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 정신장애인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판결

: 법원, 경찰의 위법한 수사 인정

장애  
인권



**2023. 06. 23.**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1심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55)

**2024. 07. 12.**

2심 무죄 선고

**2024. 11. 28.**

정신장애인 공무집행방해죄 대법원 무죄 선고

2022년 9월 말, 집 베란다에서 마약, 폭행 관련한 얘기가 오고 가는 것을 듣고 경찰에 신고한 정신질환자가 도리어 마약 의심을 받고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당사자가 정신질환이 있는지, 장애가 있는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외적으로 보이는 상태만으로 당사자의 마약 투약을 의심하였습니다. 경찰은 당사자를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고, 집을 무단으로 수색했으며, 뒷수갑을 채우고, 속옷 차림으로 연행했습니다. 경찰은 당사자를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로 기소하였고,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공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정신건강복지법, 형사소송법, 경찰 인권보호규칙 등을 통해 경찰 체포의 위법성을 밝혔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경찰의 체포와 수사의 위법성을 인정하며 1심, 2심, 3심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강제수사를 당해야 하는 현실에서 당사자들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예외적인 사례라며 시정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감은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사법기관의 편견과 불합리가 해소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거주시설 내

## 발달장애인 기도폐쇄 사망사건 관련

### 보험사 상대 소송 승소

장애  
인권



**2020. 09. 07.**

사건 발생

**2021. 04. 06.**

시설측 보험사 소제기

**2022. 12. 07.**

반소 제기

**2024. 09. 12.**

1심 법원 망인 유가족 측 전부 승소 판결

4년 전, 인천시 소재 중증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던 발달장애인이 급식실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던 중, 음식물이 기도를 막았고 해당 시설의 미흡한 응급조치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시설이 가입한 보험사는 시설의 잘못이 없으니 장례비를 포함해 500만 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진행하면서 시설의 책임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공감은 CCTV 및 부검감정서 분석, 건강기록지 및 생활기록지 분석, 가족들 면담을 통해 시설이 망인에게 정신과 약물 복용을 강요하고,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약물 조절 등 대처를 하지 않았으며, 망인이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종사자들 누구도 망인의 식사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시설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 2명에게 보험금 각 2,500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장애인의 생과 삶 모두 시설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생과 삶 모두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시설화와 시설관리에 대해 책임이 있는 정부가 시설 내 장애인의 죽음에 대해 더 들여다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공감은 시설 내 장애인의 죽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소송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 정신장애인 가족돌봄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 장애 인권



**2022. 05.**

연구용역 착수

**2022. 05. ~ 2023. 05.**

문헌조사, 설문조사, 면접조사

**2023. 07.**

국가인권위원회 중간보고

**2024. 01.**

최종보고서 완성

**2024. 02.**

연구결과보고회 및 정신장애인 인적지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2017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정신병원 비자의 입원요건과 절차가 강화되었고,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 지원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정신장애인은 10만4천 명(2021년 말 기준) 중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정신장애인 이용률은 활동지원 이용률 4.6%, 장애인 생활도우미 이용률 0.7%에 불과합니다. 정신장애인은 부모와 형제자매를 비롯한 가족돌봄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정신의료기관으로의 입원이나 시설돌봄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 또한 높은 상황입니다.

공감은 1년여 동안 연구에 참여하면서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인적지원 내용에 관한 조사, 해외 정신장애인 인적지원서비스 및 국내 법제 검토를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적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감은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2

공감  
활동  
# 03



빈곤  
복지

2

4

▶ 홈리스 및 쪽방 주민 사건 법적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

# 홈리스 및 쪽방 주민 사건 법적 지원

## 반공 복지



**2024.**

중증 지적장애인 형제복지원 피해자 형사 사건 지원, 무죄 판결 확정

**2024.**

쪽방 주민 전입신고 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확정

**2024.**

홈리스 주거팀 활동

**2024.**

홈리스행동 운영위원회

공감은 홈리스, 반빈곤 인권단체들과 함께 이들이 겪는 법적 문제와 인권침해 사안에 대응하고, 쪽방 주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홈리스는 연고가 없고 주거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가혹한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공감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로서 중증 지적장애가 있고 홈리스상태였던 A씨가 특수협박 건으로 구속된 사건을 지원하였고, 보석허가 및 대법원 무죄 판결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남영동 주민센터가 ‘건물소유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동자동 공공개발 지역의 쪽방에 거주하는 주민의 전입신고를 거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감은 이 사건을 공동대리하여 법원으로부터 쪽방 주민의 실제 주거여부 외에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관련한 내부지침 개정을 위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

빈곤  
복지



**2024. 02.**

송파3모녀 10주기 좌담회 발제

**2024. 07.**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대응활동

**2024. 09.**

'가난한 이들에게 가닿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국회토론회 발제

**2024. 10.**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 촉구' 기자회견

**2024.**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연대 활동

**2024.**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연대 활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에 해당합니다.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구조적 원인에서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닌 가족의 재산소득으로 수급요건을 따지는 부양의무자 기준, 비현실적 재산 기준과 자의적 근로능력평가와 조건부과 등으로 보장은 권리 맞춤형이 아닌 예산 맞춤형으로 이루어져 왔고, 사람을 살리자는 법이 사람을 옥죄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공감은 반빈곤 단체와 시민단체들과 더불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불합리하고 자의적 자격요건들에 문제제기하고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는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외래이용 자기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빈곤층의 의료이용을 포기하게 하는 내용으로 공감은 관련 단체들과 개악안 철회를 요구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 취약 노동

2

공감  
활동  
# 04

2

4

- ❖ 뮤지컬 앙상블 배우 근로기준법 적용 인정
- ❖ 대학생 현장실습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표

# 뮤지컬 앙상블 배우 근로기준법 적용 인정

: 노동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들을 확장하기 위한 소송들

취약  
노동



## 2021. 10. 21.

1차 뮤지컬 앙상블 배우 체당금 불인정처분 취소소송 진행

## 2022. 10. 26.

2차 뮤지컬 앙상블 배우 체당금 불인정처분 취소소송 진행

## 2025. 02. 24.

2심 승소, 2차 소송 뮤지컬 앙상블 배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 2024. 04. 16.

골프장캐디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부당해고구제신청재심판정취소소송 진행

## 2024. 05. 17.

직장내괴롭힘으로 자살한 골프장캐디 유족 대리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회사 상고기각,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의무 확인

## 2023. 09. 01. ~

방송비정규직 노동인권 단체 엔딩크레딧 활동

4년 전 코로나19로 제작사가 부도가 나 월급을 받지 못한 뮤지컬 앙상블 배우를 대리하였습니다. 정부는 뮤지컬 앙상블 배우는 근로자가 아니라며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한 정부 지원 체당금(대지급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4년 전의 그 사건은 소송이 끝나기 전에 그 배우가 임금을 받으면서 다행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또 코로나 19로 제작사가 부도가 나 임금을 받지 못한 다른 뮤지컬 앙상블 배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체당금(대지급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뮤지컬 앙상블 배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니 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시키는 대로 일하는 근로자이지만 유난히 법에서 근로자로서 인정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을의 위치에 있지만 괴롭힘으로부터,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임금체불로부터 보호받지 못합니다. 공연에서, 골프장에서, 방송에서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공감은 각종 소송과 제도개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대학생 현장실습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표

: 여성노동자, 청년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지원활동

취약  
노동



**2024. 03. 22.**

장애차별적 정규직 전환 거절 부당해고구제신청재심판정취소소송 진행

**2024. 07. 04.**

대학생현장실습대응팀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2024. 08. 14.**

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요양보호사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과제 토론회 발제

**2024. 10. 16.**

직장갑질119 젠더폭력대응팀 스토킹처벌법 시행 3주년 토론회  
'일터에서 여성들이 사라진다' 기획과 토론

**2024. 10. ~**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자문위원

**2024. 10. 22.**

국가인권위원회 대학교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관리·감독 방안 마련 정책권고

2년 전 졸업 의무 이수 요건을 채우기 위하여 학교가 추천한 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갔던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추천한 그 업체는 학생에게 폭언을 하고 보호장비 없이 위험한 업무를 시켰습니다. 그는 학교에 업체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도움을 구했지만 학교는 오히려 수강 사실 자체를 전산 기록에서 삭제했습니다. 교육부에도 도움을 구했지만 교육부는 나서주지 않았습니다. 2년 후 그 대학생이 알린 문제를 시작으로 모인 대학생현장실습대응팀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고 대학생 현장실습의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일터의 무게는 그 누구에게도 가벼울 수는 없지만, 유난히 더 많은 짐을 짊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성노동자, 청년노동자, 고령노동자 등 일터에서도 사회의 구조적 차별에 마주하는 노동자들이 그렇습니다. 공감은 연구조사와 제도개선 활동을 통해 이들과 함께 차별에 맞서고 있습니다.



공감  
활동  
# 05



# 재난 인권



“진실을 향한 걸음, 함께 하겠다는 약속”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

재난과 함께 다가 온 사람,  
우리는 여전히 그 ‘결’을 지키고 있습니다.

# “진실을 향한 걸음, 함께 하겠다는 약속”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

재난  
인권



## 2024. 01. ~ 04.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 염원 행진,  
삼보일배, 오체투지

## 2024. 09.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업무상과실치사상 1심 판결 선고

## 2024. 10. 02.

유가족협의회, 특별조사위원회 1호 진정서 접수

## 2024. 10. 22.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 기록집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 출간

## 2024. 10. 25.

호주 유가족 방한(별들의 집 방문 및 특조위 위원장 면담)

## 2024. 10. 26.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 시민추모대회

## 2024. 11. 08.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1심 판결 분석 라운드 테이블

## 2024. 11. 10.

10.29 기억소통공간 '별들의 집' 개소식

공감은 2024년에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과 함께 설 새 없이 달려온 끝에 2024년 1월 9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독립적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설치, 피해자 지원, 추모사업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공감은 특별법 통과 이후 시행령 제정,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준비 작업을 지원하고, 유가족이 원하는 진상조사과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진상규명활동을 하였습니다. 특별법 통과에 중심점이 되었던 분향소도 기억공간으로 이전하여 안정적인 유가족 소통공간과 추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책임자 처벌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해였습니다.

법원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서울경찰청 책임자들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책임자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안전사회를 위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저버렸고,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파렴치하고 무도한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남아 있고, 항소심이 남아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서 아직도 힘든 나날을 보내는 피해자들과 함께 아직 끝나지 않은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 재난과 함께 다가 온 사람, 우리는 여전히 그 ‘결’을 지키고 있습니다.

## 재난 인권



### 2024. 01.

대한변협 생명안전특위 위원장 활동

### 2024. 01.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운동

### 2024. 01.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피해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피해자 지원위원

### 2024. 01.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사건 대응

- 재중동포단체 관계자, 유가족 만남, 삼성대응 자문,  
삼성 준법감사위원회 위원장 면담

### 2024. 01.

(코로나19와 인권) 대한변협 생명안전특위 코로나19와 인권 TF 보고서 작성

### 2024. 05. 08.

재난 참사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정책제안 토론회

### 2024. 07. 17.

오송 참사 1주기 국회토론회

“사회적 참사에서 정부의 역할과 오송 참사의 해법 모색”

### 2024. 08. 26.

서울대법전원 공익과 인권

- 가슴기 살균제, 사회적 참사를 다시 생각하다 좌담회

### 2024. 09. 19.

국회 재난참사 피해지원 실태 보고회

### 2024. 11. 23.

재난피해자 권리 국제기준 배경, 내용 및 실행 연구

### 2024. 12. 17.

한국공법학회 보건안전법포럼 학술세미나 “사회적 재난과 피해자 구제”

재난참사가 발생하면, 언론은 앞 다투어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고통 받고 있는지 다루며 뉴스창을 도배하고, 정치인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현장으로 달려가고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며칠이, 몇 달이 흐르면 격앙되었던 감정은 무뎌지고, 참사 이후 유가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공감의 재난참사 피해자지원은 그때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계속되는 삶 속에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은 서로 뒤섞이며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정부의 무관심과 미흡한 지원은 피해자를 고립시킵니다.

공감은 피해자들 곁에서 고통과 슬픔, 고립감에 공감하며, 그들의 삶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피해자의 권리를 앞세워 지원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고, 정부를 설득해왔습니다. 지원 방법은 송무, 진정, 입법, 제도개선, 연구, 토론회, 정부면담, 협상, 자문, 교육 등 다양하지만 그 목적은 언제나 피해자 권리 옹호였습니다.

# 성소수자



공감  
활동  
# 06

- ▶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정정 신청 지원과 제도 개선 활동
- ▶ 평등한 가족구성권을 위한 여정



#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정정

## 신청 지원과 제도 개선 활동

### 성소수자



#### 2024.

전주지방법원 성확정수술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성별정정 허가 결정

#### 2024.

서울서부지방법원 비수술 트랜스젠더 여성의 성별정정 허가 결정

#### 2024.

서울동부지방법원 비수술 트랜스젠더 남성의 성별정정 허가 결정

#### 2024.

서울동부지방법원 비수술 트랜스젠더 여성의 성별정정 신청사건 지원

#### 20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트랜스젠더 여성 성별정정 신청사건 지원

#### 2024.

서울서부지방법원 비수술 트랜스젠더 여성의 성별정정 신청사건 지원

#### 2024.

수능 모의고사 OMR 카드 성별표시 강제 국가인권위 진정

#### 2024.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 연대활동

트랜스젠더에게 법적 성별정정은 의료기관이나 금융기관 이용, 학습과 취업 기회와 같은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전제입니다. 하지만 현행 대법원 예규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문성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수술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길 강요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성확정수술을 원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당사자를 대려 해 현행 지침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최근의 의과학적 관점에서도 성전환수술 요구는 필수적이지 않음을 설득해 성확정수술 없는 법적 성별정정 사례를 만들고, 성별이분법에 근거한 신분 증명 제도, 예규의 내용과 절차 개편을 요구하는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 평등한 가족구성권을 위한 여정

: 2024 최고 디딤돌 판결을 만나다!

성소수자



**2024. 02. 21.**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대법원 판결 촉구 기자회견

**2024. 03. 25.**

혼인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15,780명 서명부 국회 각 정당 전달

**2024. 07. 18.**

대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 전원합의체 판결

**2024. 10. 10.**

동성커플 11쌍 혼인평등 소송 제기 기자회견

**2024. 12.**

대법원 피부양자 판결 - 경향신문·민변 '2024년 최고의 디딤돌 판결' 선정

성소수자들은 혼인 및 가족제도에서 오랫동안 배제당해 왔습니다. 공감은 초창기부터 관련 연구자, 활동가들과 함께 차별적인 가족정책에 대한 대안 연구, 한국의 첫 동성혼 소송 대리 등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2년 동성커플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소송 대리를 시작했고, 2024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동성커플도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감은 이에 힘입어 '모두의 결혼' 네트워크 활동을 하며 '혼인 평등 소송'의 대리인단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11쌍의 동성커플이 혼인신고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공감은 이렇듯 평등한 가족, 평등한 사회를 위한 혼인평등 제도화를 위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공감  
활동  
# 07



# 국제 인권



▶ 같은 이주민의 인권을 위해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제6차 대한민국 심의 대응

▶ 캄보디아 진출 한국 은행의 약탈적 대출 관행  
현지 실태조사

# 같은 이주민의 인권을 위해

: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국가배상 소송 및 출입국관리법 제63조 개정 활동

국제  
인권



**2021. ~ 2024.**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껍기 고문사건 대책위 활동

**2023. ~**

이주구금제도개선TF 활동

**2024. 05. 09.**

외국인보호소 새우껍기 고문사건 국가배상 1심 승소 판결

**2024. 05.**

'반인권적 출입국관리법 입법예고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이주정책포럼

**2024. 05.**

출입국관리법 입법예고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2024. 05.**

출입국관리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

**2024. 06. ~**

외국인보호소 새우껍기 고문사건 항소심 시작

**2024. 07. ~ 2025. 02.**

국회의원실, 법무부, 국가인권위 등 관계기관 면담

**2024. 09.**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4. 10.**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발족

**2024. 12.**

'외국인보호제도의 올바른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2025. 01.**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기자회견

인신구속은 자유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가혹한 제한입니다. 그러나 구속된 사람은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이주민도 그렇습니다. 공감은 외국인보호소의 존재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부터 이주구금의 자의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2021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새우껍기 고문사건의 진상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2022년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24년 국가에 책임을 묻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023년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독립적·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 없이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제 63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현재 결정 후 공감은 여러 공익법률단체와 시민단체와 함께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시민사회가 지지하는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구금상한을 36개월로 하는, 현재 결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정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회 논의에 개입하는 것은 쉽지않은 않았습니다.

공감은 현재 결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에 참여하는 의원, 정부와 관계 기관에 끊임없이 의견을 전달하고 설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2025년 2월 27일 구금상한을 20개월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여전히 집행기관의 자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지만, 큰 변화인 것 또한 분명합니다.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 제6차 대한민국 심의 대응

### 국제 인권



**2024. 06. 10.**

고문방지위원회 제6차 대한민국 심의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보고서 제출

**2024. 07. 08.**

제네바에서 시설수용 피해자 증언대회 진행

**2024. 07. 09.**

제네바 유엔 사무소 앞 집회, 고문방지위원회 NGO 브리핑 진행

**2024. 07. 10. ~ 11.**

대한민국 심의 진행

**2024. 07. 26.**

최종견해 발표

**2024. 07. 31.**

최종견해 권고 이행 촉구 국회 기자회견

2024년 7월, 제네바 유엔 사무소에서 우리나라의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약칭 ‘고문방지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심의’가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고문이 어디 있어?’ 하실 수 있지만, 외국인보호소 새우껍기 고문 사건을 비롯하여 장애인의 시설수용, 군대 내 학대 및 사망사건, 교도소 과밀 수용 등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공감은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이런 실태를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권고가 필요한지 제시하는 공동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시설수용 피해자 두 분과 함께 심의가 진행되는 제네바에 가서 증언대회를 하고, 심의 전 ‘NGO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가 심의에서 언급해야 할 의제들을 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2024년 7월 26일, 고문방지위원회는 시민사회에서 제안한 권고가 다수 포함된 최종견해를 발표하였고, 시민사회 사무국은 국회에서 정부의 최종견해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캄보디아 진출 한국 은행의 약탈적 대출 관행 현지 실태조사

## 국제 인권



### 2024. 04. ~ 07.

캄보디아 진출 은행 본사에 서한 발송, 전화 시도, 민원 제출

### 2024. 08.

캄보디아 현지 실태조사 진행

### 2024. 10. 04.

한겨레21 제1533호 표지이야기를 통해 국내 최초 보도

### 2024. 10. 10.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

### 2024. 12. 09.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공동진정서 제출

공감은 한국 기업들의 해외 사업으로 인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에는 공감이 소속된 기업과인권네트워크 활동가들과 함께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은행들의 약탈적 대출 관행이 현지 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현지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은행들은 교육 수준과 금융이해력이 낮은 농촌 빈곤층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대출 영업과 추심을 통해 높은 이자 수익을 올리는 한편, 농민들은 과도한 빚으로 인해 생계 수단인 토지를 잃고 더욱 깊은 빈곤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에는 현지 실태조사에 동행한 기자의 기사를 통해 이 문제가 국내 언론에서 처음 보도되었고, 문제에 관심을 보인 국회의원실과 소통한 결과 국정감사에서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이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024년 12월에는 캄보디아 현지 인권단체와 함께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이 문제에 대한 공동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 공익법 교육·중개

- ♥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 ♥ 로스쿨 실무수습

2

공감  
활동  
# 08

2

4

#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공익법  
교육·증개



## 2024. 01.

11기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공고

## 2024. 04.

11기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면접 전형 및 선발

## 2024. 05. ~

김도희 변호사(동물해방물결)

김연주 변호사(난민인권센터)

위서현 변호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자립지원

공감은 공익·인권을 위한 직접 법률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공익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법조공익모임 나우와 공동으로 매년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은 공익단체에서 일하고자 하는 공익변호사들의 신청을 받아 지원자를 선정하고 공익단체에 이들에 대한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1기를 시작으로 하여 2024년에 11기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11기에 지원을 받은 이들은 동물권 활동을 하는 ‘동물해방물결’의 김도희 변호사, 난민 인권에 힘쓰고 있는 ‘난민인권센터’의 김연주 변호사, 전남·광주 지역에서 공익·인권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의 위서현 변호사입니다. 공감은 세 변호사에게 2024년 상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2년에 걸쳐 인건비를 지원하고 필요한 자문을 합니다.

# 로스쿨 실무수습

공익법  
교육·증개



**2024. 02.**  
로스쿨 동계 실무수습

**2024. 08.**  
로스쿨 하계 실무수습

공감은 전국의 로스쿨과 협약을 맺고 1년에 2차례의 로스쿨 방학기간 동안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수많은 실무수습생이 공감을 거쳐 공익변호사를 비롯하여 법조계 각 영역으로 진출하였습니다.

실무수습생들은 각자의 관심 영역에 따라 공감의 변호사들과 매칭되어 2주간 활동하였습니다. 공감의 영역별 활동에 대한 세미나를 듣고, 공익사건 관련 서면을 작성하고 진행 중인 사건의 법률 리서치를 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공익 인권 실무를 경험하였습니다. 공감의 마음이 가득한 법조인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공감은 늘 새로운 교육과 소통의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20  
04

- 아름다운재단 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으로 활동 시작
  - 제1차 공익단체 변호사 파견지원 사업 시작
- 이주노동자,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주여성, 성매매피해 여성, 장애인을 위한 법률지원

20  
05

- 1기 공감 정기자원활동가 활동 시작(정기자원활동가 제도 운영)
  - 시각장애인 지하철 추락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 국제결혼 중개 구조 실태 연구 - 베트남, 필리핀 현지조사
    - 변협 노인학대 예방 매뉴얼 작성(~2006 발간)

20  
06

- 성·인종 차별적 국제결혼 광고 대응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2010 시정권고결정)
  - 보험회사의 장애아동 보험가입 거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 버마 출신 민주화 활동가의 난민 자격 취득을 위한 행정소송 승소(1심~대법원 확정)

20  
07

- 제7차 공익단체 법률지원(2004년부터 62개 공익단체 파견)
  - 비닐하우스촌 수정마을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1심~대법원 확정)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구, 토론, 공청회 발제 등 입법 활동

20  
08

- 스톡킹 피해 여군 장교의 항명죄 항소심 변론, 무죄판결
- 한국인 배우자의 정신장애 은폐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승소(1심)
  - 국제심포지엄 '로스쿨과 공익인권법 : 전망과 모색' 개최

20  
09

- 이주아동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개최 및 법안 발의 등 입법활동
- 지역주민의 반발로 노숙인 쉼터 설치 신고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승소(1심)
  - 용산참사 철거민 공동변호인단,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20  
10

- 영화 '친구사이'의 동성애 표현을 이유로 한 청소년관람불가 판정 취소 소송 승소(1심~대법원 확정)
  - 표현의 자유를 위한 국제인권 네트워크 구성

## 공감이 걸어온 길

20  
11

- 유엔난민인권규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난민법 제정
- 아동의 최상의 이익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 사회복지시설의 책임성을 높이는 사회복지사업법(‘도가니법’) 개정

20  
12

-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소송
- 요양 보호사의 부당한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소송 지원 및 입법활동
-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법정책 연구회’ 구성 및 연구 활동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2 대한민국 심의 관련 NGO 활동

20  
13

- (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창립
- 필리핀 진출 한국 기업 인권 감시 실태 조사
- 공감 에세이집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출간

20  
14

- 제1회 공익변호사 자립지원 사업 실시
- 제1회 공익변호사 한마당 주최
- 세월호 참사
  - 유가족 지원을 위한 변호사 파견, 사망한 민간 잠수사와 기간제 교사를 위한 법률 지원

20  
15

- 압구정 아파트 경비원 사망 사건의 손해배상청구 승소(1심) 및 아파트 경비원 인권 옹호 활동
- 정신병원 감금 피해자 대리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및 정신 장애인 복지지원법 제정 활동

20  
16

- 정신병원 강제입원제도 위헌제청신청 사건,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 장애청소년 대상 경찰의 위법수사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소송 승소
-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 조사

20  
17

-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승소(1심)
- 이주노동자 주거권 개선을 위한 연구 조사 및 법적 개선
- 삼표동양시멘트 해고 노동자 법률 지원 활동,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전원 복지

2018

- 미군 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청구 항소심 승소
-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 친족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 고소대리 사건 항소심 가해자 유죄 판결

2019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 한국판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 수급자 사망사건 국가배상청구 승소
  - 시간제 돌봄전담사에 대한 차별시정사건 승소
  - 국정원 여직원 정년 차별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 성소수자 지지를 이유로운 신학대학원의 학생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승소

2020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헌법불합치 결정
- 쌍용차 해고 노동자 전원 복직을 위한 법률 지원
-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공동대책위 활동

2021

- 생식능력 제거 수술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허가
- 화성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책위원회 활동(~2024)
  - 신장장애인 부당해고 사건 행정소송 승소

2022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활동
-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법인설립불허 행정심판 청구 인용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대한민국 2~3차 심의
  - 유엔 국가별인권상황 정기 검토(UPR) 사무국 활동
    - 돌봄노동자 법률 지원
- 쪽방주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활동과 홈리스 차별 인권위 진정

2023

- 국내 첫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판결(2심)
- 외국인 무기한 구금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헌법불합치 결정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 정신장애인 우체국 금융거래 제한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 승소
  -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구 건설근로자법 위헌 결정
  - 여성홈리스 강간치사 사건 피해자 유족 조력

2024

- 한신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출국 사건 법률지원단 활동
  -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개정TF 활동
- E-6 예술행행비자 악용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창립 20주년



수입 항목에서 '이자 및 기타'수입은 무엇인가요?

⇒ 예금이자와 인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 항목에서 인건비 비중이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 '공감 변호사의 활동 = 공감의 사업'입니다. 공감은 법률지원활동에 대한 수입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전업 공익변호사 활동을 위한 인건비는 공감 고유의 활동을 위한 것입니다.



지출 내역

(단위:천원)

모금비	
인건비	66,620
사회보험료	5,610
복리후생비/교육훈련비	12
시설관리비	2,010
도서인쇄비/소모품비	12,296
기타	14,699
<b>합계</b>	<b>101,247</b>

일반관리비	
인건비	55,331
사회보험료	4,280
복리후생비/교육훈련비	3,759
시설관리비	2,146
도서인쇄비/소모품비	3,775
기타	15,601
<b>합계</b>	<b>84,892</b>

사업수행비	
인건비	573,946
사회보험료	48,857
복리후생비/교육훈련비	212
시설관리비	14,987
공익변호사자립지원사업비	152,599
네트워크단체지원사업비	21,711
법률교육비	290
법률지원비	3,976
소송지원비	9,527
교육중개비	8,395
연구조사비	9,138
인권법캠프비	6,883
포럼비	178
도서인쇄비/소모품비	5,161
기타	4,020
<b>합계</b>	<b>859,880</b>

# 함께하는 사람들 기부회원

가정준	강경두	강경희	강규영	강군하	강기목	강기영	강기욱	강기탁	강기현	강나현	강대진	강동한
강두한	강문혁	강 미	강미리	강미선	강미아	강미정	강민영	강민정	강방권	강봉수	강서영	강서영
강성화	강성대	강성원	강성자	강세라	강세희	강송옥	강수경	강수정	강순이	강승수	강승연	강신영
강신욱	강연성	강영규	강용현	강유나	강유미	강윤아	강윤희	강울리	강은옥	강정규	강정숙	강정아
강준모	강지아	강지용	강진영	강찬	강태성	강태승	강태호	강필성	강현규	강현정	강현철	강환이
강희철	고건덕	고경란	고동선	고미숙	고병원, 조현지	고성민	고세훈	고연금	고연준	고연희	고영란	고영란
고원용	고원형	고은아	고진선	고진수	고찬옥	고태현	고희수	고한나	고희경	공두현	공수진	곽경민
곽성자	곽시은	곽예람	곽우섭	곽우정	곽은비	곽이현	곽현실	구량욱	구성원	구영식	구윤호	구인호
구자은	구자혁	구현주	구해진	권규보	권기현	권기호	권영보	권미란	권배주	권보미	권석현	권영옥
권오곤	권오민	권오직	권영선	권영숙	권영종	권이선	권 일	권 일	권정순	권준울	권준희	권지윤
권지희	권진영	권진이	권태섭	권태윤	권평정	권현주	권현준	권혜은	권호선	금영은	금현아	김가연
김가윤	김결희	김경림	김경림	김경미	김경미	김경민	김경선	김경아	김경연	김경연	김경옥	김경진
김경태	김경호	김계봉	김고운	김관구	김관철	김광길	김광래	김광숙	김광영	김광옥	김광호	김교신
김구열	김권희	김권희	김규식	김규화	김근영	김기남	김기덕	김기연	김기영	김기현	김나경	김나라
김나연	김나형	김난연	김남국	김남일	김남희	김남형	김남희	김다영	김다은	김다환	김대중	김덕여
김도연	김도현	김도형	김도희	김도희	김동건	김동연	김동욱	김동한	김동현	김두식	김대경	김락현
김래나	김 린	김명수	김명수	김명숙	김명숙	김명원	김명희	김목홍	김미경	김미선	김미연	김미연
김미영	김미정	김미하	김미화	김미희	김민관	김민국	김민렬	김민석	김민성	김민아	김민영	김민욱
김민재	김민정	김민정	김민조	김민주	김민주	김민주	김민철	김민철	김범준	김범진	김범진	김범국
김병민	김병수	김병오	김병욱	김병호	김보람	김보미	김보선	김보영	김보영	김복기	김봉진	김봉진
김상미	김상민	김상열	김상은	김상준	김상준	김상현	김상훈	김새순	김서연	김서진	김서현	김석현
김선기	김선빈	김선자	김선진	김선희	김성범	김성수	김성욱	김성은	김성주	김성태	김성현	김성호
김성호	김성환	김성효	김성훈	김성희	김세진	김세현	김소연	김소연	김소연	김솔지	김수미	김수민
김수빈	김수열	김수영	김수용	김수정	김수정	김수정	김수정	김수진	김수현	김수현	김수현	김수호
김숙희	김순자	김순정	김순주	김순아	김순연	김승진	김승현	김승현	김승희	김시내	김시은	김 신
김아름	김아영	김연석	김연정	김연주	김연지	김영건	김영덕	김영란	김영민	김영선	김영수	김영순
김영옥	김영은	김영은	김영조	김영준	김영진	김영진	김영현	김영희	김예린	김예영	김예원	김예지
김옥희	김완모	김용빈	김용우	김용철	김용희	김우빈	김우연	김우영	김우재	김우중	김용열	김원규
김원배	김원희	김유리	김유림	김유봉	김유정	김유진	김유진	김유희	김윤경	김윤선	김윤아	김윤애
김윤정	김윤정	김윤진	김윤희	김은숙	김은아	김은영	김은재	김은정	김은지	김은진	김용돈	김이서
김창근	김이수	김이현	김인석	김인숙	김인택	김자봉	김자연	김재관	김재민	김재양	김재원	김재원
김재원	김재중	김재춘	김재춘	김재현	김재환	김재훈	김정근	김정린	김정민	김정민	김정선	김정순
김정실	김정아	김정안	김정예	김정은	김정은	김정익	김정일	김정진	김정학	김정혜	김정화	김정환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조현	김종건	김종민	김종보	김종서	김종순	김종욱	김종일	김종일	김종철
김종하	김종현	김좌진	김주동	김주미	김주옥	김주현	김 준	김준석	김준연	김준우	김준태	김지선
김지수	김지아	김지양	김지영	김지완	김지원	김지원	김지은	김지향	김지형	김지혜	김지혜	김지혜
김지혜	김지호	김지훈	김 진	김진국	김진석	김진성	김진아	김진영	김진영	김진옥	김진우	김찬호
김창근	김창조	김창호	김창환	김철민	김채린	김채환	김철민	김춘수	김춘진	김치훈	김태성	김태중
김태현	김태형	김태형	김태형	김태호	김하늘	김하영	김학자	김한규	김한규	김한석	김해성	김해인
김해정	김해주	김현경	김현기	김현대	김현미	김현미	김현수	김현아	김현영	김현우	김현이	김현정
김현진	김현철	김현해	김형권	김형로	김형연	김형준	김혜란	김혜련	김혜림	김혜선	김혜승	김혜신
김혜인	김혜정	김혜지	김혜진	김호성	김호철	김홍국	김홍년	김홍울	김화영	김회연	김효국	김효관
김효민	김효숙	김효영	김효주	김효진	김효진	김훈식	김희경	김희수	김희수	김희정	나대현	나승철
나은식	나진아	남경호	남기연	남기철	남병영	남승한	남연진	남유정	남유미	남정원	남찬섭	남혜선

노경희	노귀선	노 로	노성철	노승욱	노애리	노연희	노영재	노영주	노창호	노푸른	노현웅	노혜련
노혜성	노희선	노희정	노재형	노종호	노주은	노훈태	라홍석	랄 라	류다솔	류 관	류영희	류신호
류신환	류연철	류영재	류원호	류정선	류정아	류재성	류준세	류현진	류현철	류혜정	류호성	류희원
마 고	마 순	맹남주	명한석	모건약국	모광희	목영준	문경란	문경순	문귀서	문기돈	문미란	문 빛
문서진	문연진	문영선	문영화	문예신	문옥훈	문은현	문종식	문준영	문지은	문호승	민경홍	민동섭
민선영	민에은	민유나	민준기	민지원	민정옥	민한기	민혜수	민혜정	박기현	박건우	박경배	박경석
박경신	박경웅	박경웅	박경철	박경희	박귀천	박규도	박규정	박 근	박금주	박기례	박기영	박기효
박기현	박나래	박노익	박다운	박대협	박동균	박동숙	박명희	박미애	박미희	박민욱	박병규	박병조
박병준	박봉일	박상록	박상배	박상연	박상용	박상윤	박상윤	박상현	박상희	박서진	박서희	박서현
박선아	박선아	박선영	박선영	박선희	박성구	박성욱	박성진	박성채	박세용	박세진	박소연	박소연
박소영	박소현	박송이	박수명	박수민	박수빈	박수연	박수찬	박수현	박숙란	박숙미	박순덕	박순주
박시우	박시환	박신서	박신애	박신영	박신혜	박아롱	박연호	박연희	박영수	박영수	박영숙	박원형
박용대	박용수	박용식	박용찬	박원홍	박유리	박유형	박윤근	박윤숙	박은경	박은경	박은영	박은영
박은정	박은주	박은옥	박은하	박인석	박인희	박재우	박재우	박재홍	박정교	박정근	박정영	박정민
박정숙	박정원	박정옥	박정원	박정희	박정희	박정훈	박재명	박종기	박종기	박종문	박종춘	박종환
박종훈	박주민	박주연	박주원	박지희	박준기	박준서	박준서	박지나	박지영	박지현	박지현	박지호
박지환	박지훈	박지훈	박진동	박진석	박진호	박진호	박찬우	박철완	박태성	박평아	박하연	박한희
박 혁	박현규	박현근	박현빈	박현애	박현주	박형수	박혜경	박혜란	박혜원	박호근	박홍진	박화숙
박효진	박효진	반미영	반예을	반재용	방경희	방서은	방서은	방승빈	배대용	배도준	배삼희	배도이
배영근	배영희	배원석	배유미	배윤영	배은희	배정호	배지영	배현아	배해선	백경미	백나라	백도이
백도라지	백 민	백범식	백성우	백성진	백소연	백승희	백이주	백일하	백정화	백종근	백종수	백지예
백지현	범주환	변다희	변수양	변영선	변영선	변영진	변지영	변종서	변진호	봉 옥	부지환	서기원
서강석	서동운	서미애	서범욱	서상범	서상원	서석우	서순아	서수미	서이인	서영국	서영지	서원석
서우람	서유진	서은영	서은혜	서정희	서지애	서진환	서창록	서창호	서재완	서지원	서한석	서해정
서현선	서혜석	서희원	석근배	선우아정	선재원	선혜숙	설은은	설예원	성갑선	성계숙	성근희	성기현
성덕형	성승현	성우제	성유학	성정모	성준근	성창익	소라미	소민호	소순무	소영현	소윤민	소재욱
소지민	손민아	손봉기	손성근	손아람	손영덕	손영훈	손정유	손주완	손준호	손종모	손필숙	손하riel
손현경	손현채	송경근	송동현	송두환	송명숙	송명훈	송미지	송민경	송민수	송보영	송상교	송수경
송시현	송영훈	송오섭	송용원	송이내	송정근	송주희	송준희	송준희	송지우	송지연	송지연	송지희
송찬철	송창희	송지희	송태현	송하경	송해구	송현정	신기영	신건호	신국식	신 권	신대연	신대희
신동석	신동화	신명근	신미경	신민정	신병주	신상은	신새미	신건경	신성식	신소현	신수경	신승미
신아영	신영옥	신예호	신원기	신유림	신유재	신유정	신유준	신윤진	신은진	신정림	신종균	신종철
신주영	신주현	신진수	신진화	신창용	신필식	신현길	신현호	신혜성	신혜영	신혜원	신화경	신훈민
심광택	심나리	심보미	심상휘	심성우	심소현	심수미	심재진	심재철	심재원	심지연	심지영	심현아
심희정	안경환	안기순	안다연	안미경	안병국	안병학	안상균	안상영	안상일	안성수	안성식	안승룡
안영철	안영춘	안영환	안유진	안지민	안정원	안주영	안지희	안희영	안한진	안혜령	안혜림	안희철
양병현	양선미	양선우	양성우	양승미	양승범	양영모	양영화	양유미	양은선	양인희	양재원	양정숙
양준희	양지연	양지원	양지은	양지희	양창영	양홍석	양희모	양희준	엄민지	엄영신	엄해진	여연식
여영숙	여은국	여지은	여환희	연재훈	연재현	염경용	염경주	염신연	염주민	염천우	염천주	염혁국
염형철	염홍섭	예지숙	오가연	오강민	오기환	오동원	오동환	오명희	오미숙	오미현	오병두	오상조
오상현	오석연	오선근	오성심	오성열	오소림	오수정	오승민	오신영	오연서	오영신	오영아	오영중
오예지	오유미	오유빈	오은정	오은지	오응철	오이석	오인수	오재림	오재욱	오재창	오종환	오지원
오지훈	오진호	오지진	오현후	오형석	오혜경	옥수정	온채희	왕미양	왕성진	우경주	우수완	우아름
우은주	우지민	우지연	원영진	원영호	유은진	유다운	유덕기	유동철	유동훈	유득수	유미영	유민상
유바미	유선애	유선영	유성애	유수정	유소희	유승룡	유승민	유승용	유시화	유연실	유영민	유영일
유옥경	유용덕	유 원	유원규	유인선	유재광	유재원	유재철	유정령	유정민	유정화	유정훈	유지현
유지호	유진선	유창석	유채빈	유태형	유효영	육성철	윤규상	윤기열	윤나라	윤다솜	윤덕로	윤도경
윤명순	윤미영	윤민화	윤병우	윤보름	윤복남	윤상균	윤석준	윤석희	윤성수	윤성운	윤세중	윤소정
윤신승	윤아름	윤영순	윤홍호	윤원근	윤유선	윤은오	윤자영	윤재실	윤재윤	윤재훈	윤정규	윤정숙
윤정연	윤정원	윤정향	윤종성	윤지숙	윤지현	윤진수	윤진호	윤천우	윤태오	윤해림	윤현우	윤혜숙

# 함께하는 사람들 기부회원

윤혜영	윤홍식	은 탁	은현호	이가연	이강군	이강원	이강희	이건숙	이 결	이경미	이경민	이경을
이경재	이경준	이경희	이계성	이계수	이계필	이광원	이 구	이권열	이규명	이규범	이기선	이기연
이길재	이나래	이난영	이다영	이다혜	이달별	이대근	이도경	이동국	이동근	이동연	이동우	이동주
이동준	이동혁	이동화	이동훈	이두진	이두희	이명재	이명철	이문희	이미경	이미란	이미선	이미숙
이미영	이미영	이미지	이미현	이미희	이민경	이민경	이민순	이민영	이민재	이민재	이민주	이병래
이병민	이 별	이복현	이본영	이봉재	이봉준	이봉현	이산희	이상국	이상민	이상봉	이상석	이상수
이상아	이상연	이상중	이상필	이상혁	이상희	이서연	이서진	이서진	이석우	이선기	이선미	이선순
이선영	이선응	이선임	이선희	이성엽	이성원	이성은	이성진	이성희	이세라	이세리	이세린	이세연
이세인	이세진	이소담	이소아	이소연	이소영	이소운	이소희	이 승	이승준	이수련	이수미	이수연
이수연	이수영	이수진	이수현	이수현	이수현	이수혁	이승수	이승우	이승욱	이승원	이승원	이승은
이승자	이승철	이승한	이승한	이승헌	이승헌	이승훈	이심가는	이아람	이안소영	이양원	이예린	이여름
이연창	이영래	이영림	이영민	이영주	이영주	이영주	이영호	이예지	이예찬	이예한	이예화	이용복
이용세	이용우	이용우	이용표	이우승	이우진	이우환	이원규	이원재	이유경	이유미	이유열	이유진
이유철	이윤구	이윤정	이 은	이은숙	이은숙	이은영	이은영	이은일	이은정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희	이인규	이인복	이인숙	이인호	이 일	이장호	이재명	이재성	이재승	이재승	이재욱	이재한
이재형	이재훈	이정민	이정민	이정호	이정호	이정아	이정연	이정원	이정은	이정은	이정이	이정진
이재희	이정환	이제철	이제호	이종록	이종미	이종수	이종식	이종훈	이희희	이주경	이주연	이주영
이주영	이주창	이주하	이주한	이주형	이주혜	이주희	이준범	이준석	이준수	이준일	이준철	이준환
이지나	이지영	이지은	이지행	이지행	이지현	이지현	이지혜	이지혜	이지환	이지희	이진권	이진만
이진숙	이진우	이진우	이진주	이찬진	이창국	이창석	이창형	이창형	이창훈	이창희	이채민	이채식
이채원	이채현	이철기	이철주	이총희	이준재	이치신	이탁건	이탄희	이태정	이태호	이하정	이하정
이한본	이한솔	이한재	이해욱	이항임	이항재	이현영	이현주	이 혁	이혁재	이현미	이현숙	이현승
이현정	이현주	이현주	이현주	이현주	이현진	이형근	이형근	이형미	이형미	이형희	이형자	이형준
이형직	이혜리	이혜영	이혜은	이혜욱	이혜원	이혜윤	이혜진	이호식	이호원	이호인	이호재	이호정
이호중	이호철	이호철	이홍석	이화영	이화정	이화준	이황희	이효경	이효숙	이효정	이효제	이효희
이희경	이희경	이희선	이희섭	이희순	이희승	이희승	이희정	이희찬	이희현	임규원	임기화	임남규
임대빈	임대원	임봉준	임상욱	임선주	임성룡	임성순	임성호	임세와	임수경	임수진	임수희	임영미
임영호	임예지	임원범	임은영	임지운	임재만	임재성	임정은	임정하	임진주	임진홍	임창현	임재호
임동일	임한별	임현묵	임혜원	장경욱	장교식	장낙원	장달리	장도중	장미희	장민주	장민환	장병호
장보람	장석우	장선영	장세명	장세현	장승희	장영정	장영정	장예린	장예림	장옥희	장 원	장원태
장유식	장윤석	장윤정	장윤주	장윤주	장윤호	장은경	장은영	장은주	장이현	장재영	장정환	장지숙
장철익	장 품	장현은	장현진	장혜민	장효정	장 훈	장희국	전경태	전덕규	전명호	전민성	전민식
전병규	전상윤	전선희	전성관	전성지	전수경	전영록	전용범	전우정	전원진	전은경	전재우	전정현
전정환	전정희	전창률	전현숙	전혜원	전화승	전효숙	정가영	정경민	정계현	정고는	정관영	정광현
정구진	정남순	정다정	정다훈	정다성	정대원	정도영	정명준	정명화	정명희	정미경	정미나	정미옥
정미하	정민석	정민영	정병민	정병삼	정병수	정병현	정상혁	정서영	정서희	정성중	정선명	정선옥
정성악(김진옥)	정성용	정성호	정성훈	정성현	정세진	정소망	정소연	정소연	정소연	정소연	정소연	정수미
정순현	정승희	정아선	정아영	정지윤	정연선	정연옥	정연주	정연주	정연선	정연선	정연선	정용승
정원익	정원진	정우석	정우진	정윤경	정윤수	정윤하	정은령	정은영	정은정	정은희	정인영	정인홍
정재건	정재욱	정재욱	정재필	정재현	정재현	정정국	정정숙	정정진	정정화	정정환	정정훈	정제형
정재훈	정중호	정주형	정준학	정지연	정지용	정지웅	정지원	정지하	정지훈	정 진	정진화	정 철
정춘석	정한솔	정한을	정한중	정행주	정현우	정형모	정형준	정혜성	정혜영	정혜진	정혜진	정호진
정희숙	정환업	정희경	정희정	정희진	조근희	조경주	조경희	조계완	조광희	조규식	조기연	조나리
조대연	조덕현	조문성	조문숙	조미형	조민자	조범석	조범수	조선영	조성준	조세현	조수진	조숙현

조순미빅타임스 조승희 조아라 조아라 조아현 조연희 조영관 조영린 조영미 조영선 조영신 조영연  
 조영현 조영혜 조영희 조용기 조용수 조용하 조우람 조우영 조원희 조유경 조윤산 조윤상 조은서  
 조은성 조은진 조은진 조의연 조익섭 조인영 조인재 조인태 조재경 조재영 조재영 조재호 조정은  
 조정현 조정현 조주영 조준우 조준호 조태주 조현미 조현복 조현주 조혜련 조혜인 조혜주 조혜진  
 조홍택 조호민 조홍식 주기영 주선민 주선영 주선하 주수희 주신영 주영삼 주영진 주지원 주형진  
 지 박 지선경 지성호 진근태 진다희 진양화 진재영 진형혜 진혜순 차미령 차민형 차승주 차승호  
 차영욱 차용선 차정희(신정희) 차지훈 차진태 차태진 차현미 차혜령 채성호 채양희 채정석 채희근  
 천만우 천정훈 천지선 최강웅 최강욱 최 결 최경호 최계영 최광기 최국신 최권행 최규진 최 근  
 최기림 최기선 최나빈 최다인 최달웅 최대호 최대훈 최대영 최문순 최문정 최미경 최미영 최미정  
 최민경 최민형 최병선 최병영 최보라 최상미 최서연 최서연 최서훈 최서희 최석봉 최선주 최성규  
 최성보 최성원 최성일 최세중 최세현 최소연 최수영 최수희 최수정 최승철 최아람 최연수 최영규  
 최영희 최 용 최용규 최용범 최용직 최용혁 최용호 최용영 최원근 최원호 최 유 최유남 최유리  
 최유진 최유진 최윤수 최윤정 최윤혁 최윤희 최은희 최은정 최은주 최인선 최인혁 최재신 최진영 최정규  
 최정민 최정식 최정아 최정인 최정임 최정환 최종선 최종연 최종환 최준규 최준근 최준성 최준우  
 최준혁 최지경 최지영 최지은 최지은 최 진 최진수 최형성 최진화 최창석 최창우 최철기  
 최해윤 최희재 최현우 최현욱 최현정 최현진 최현진 최혜지 최혜지 최홍정 최홍업 최홍조 최효재  
 최희정 최희정 추은정 추은혜 추혜윤 탁경국 탁동현 표승비 하나영 하 빛 하상우 하양진 하인숙  
 하정영 하주희 하준영 하지석 하지현 하진경 하진화 하희봉 한경수 한광현 한국염 한기영 한대일  
 한미미 한민우 한병준 한보경 한상만 한상미 한상희 한성민 한수민 한 숙 한승석 한승표 한애라  
 한영동 한영주 한예슬 한유진 한은희 한이경 한재호 한정원 한지수 한지연 한진수 한창건 한창남  
 한창란 한철웅 한필운 한학수 한화숙 한효은 함동호 함영선 허나눔 허누리 허성국 허연숙 허윤석  
 허오영숙(허영숙) 허인희 허 정 허정집 허정희 허태정 허호재 허지원 현지원 현두호 현우혁 호문혁  
 호승진 호경선 호경화 호기태 호나영 호두의 홍 민 홍성민 홍성수 홍성진 홍수빈 홍수정 홍수희  
 홍순영 홍승기 홍승혜 홍아현 홍여진 홍영재 홍원희 홍용희 홍원표 홍윤선 홍은기 홍정기 홍정아  
 홍정훈 홍지백 홍지수 홍지연 홍진영 홍진표 홍혜선 황가혜 황매화 황미정 황보인구 황성아 황성현  
 황승욱 황승용 황예랑 황용기 황원규 황은경 황의홍 황인이 황재호 황준협 황지현 황지현 황지혜

익명 익명기부 익명후원 가화만사성 공감파이팅

HANBOONYOUNG Hyun-Soo Lim jinsu jeong KIMSEINE OH MYONGSOOK SUSAN Patricia Goedde  
 Shin Eileen Jaiyoung WATERS DAVID MARTIN

(사)한국성폭력상담소 / (사)한국여성노동자회 / (사)한국여성민우회 / (사)한국여성전전화 /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 국제민주연대 / 군인권센터 / 난민인권센터 / 노동장애인야학 / 다산인권센터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명동 / 사단법인 나눔과이음 / 사단법인 녹색연합 /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 (재)성심수도회 / (재)화우공익재단 / 참여연대 / 사단법인 선

사단법인 인허우스카온술포럼 / 사단법인 직장갈질119 / 사단법인 비온뒤무지개재단 / 아름다운재단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사람 / 인기법연구센터 /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 희망의친구들 /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이주노동자노동조합 / 장애여성공감 / 재단법인 동천 /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 친구사이 / 한국난독증협회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희망연대본부 (이주센터) / 희망을만드는법

KIN(지구촌동포연대) / UNHCR / (주)미래에너지 / (주)법률신문사 / (주)비트컴퓨터 / (주)사이로직

(주)센티널테크놀로지 / (주)스페이스2.0 / (주)미래테스트 / 우영산업(주) / 도봉양말협동조합 / 미소로한의원(전주)

서울새싹병원 / 성균관현원 / 세탁전문점항기 / 에이치피프린팅코리아 유한회사 / 에이캐드 / 예코네트웍(주)

일월산생고기직화구이 / 주식회사 전주공리 / 주식회사 엔스트리트 / 퀴드자산운용(주) / 톱발리 주식회사 / 호영가 마스타

법률사무소 용기 / 법무법인 덕수 / 법무법인 재상 / 법무법인 한누리 / 법무법인(유)클라한결 / 법무법인(유한) 주원

법무법인(유한) 지평 / 법무법인 여의 / 법무법인 유레(JURE)시흥 / 법조공익모임 나무 / 변호사조윤성법률사무소

서울지방법원사회 / 연세대학교 공익인권법학회 / 종합법률사무소정문 / 지안법무사합동사무소

# 함께하는 사람들 이사회

## 김이수 이사장

공감은 역지사지(易地思之)  
역지감지(易地感之)입니다.



## 김영준 이사

법의 언어로 희망을 쓰고  
공감을 새깁니다.



## 데이빗 워터스 이사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주는 공감에게,  
감사합니다.  
공감은 단순히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잊어버린 이들에게  
새로운 대본을 써주는 조직입니다.



## 변영식 이사

봄꽃처럼 아름다운 그대  
큰 위로가 됩니다.  
봄꽃처럼 내 곁에 다가온 그대  
고맙습니다.  
공감이 있어 다행입니다.



## 변영선 감사

2025 봄을 기다립니다.  
공감이 봄입니다.



## 오중석 감사

첫마음의 길을 따라  
한결같이 걸어온 겨울 정오  
돌아보니 고비마다 굽은 길이네  
변화하는 세상을 거슬러 오르며  
성처마다 꽃이 피고 눈물마다 별이 뜨는  
굽이굽이 한결같은 첫마음이 있을 뿐  
- 박노해, 첫 마음의 길



### 김유니스 이사

공감은 우리 사회의 빛입니다.  
공감과 함께 우리 사회를  
밝게 비추어요!!



### 노정희 이사

공감의 역사에  
한 발을 디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 오명숙 이사

작은 공감이  
큰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공감과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 윤재운 이사

이 어두움 밝히도록  
우리 모두 '공감'의 스위치를 누릅니다.

### 김현수 이사

보이지 않던 사람들을 보이게 하는 곳, 공감..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세상에 들리게 하는 곳, 공감..  
있을 곳 없는 사람들에게  
머무를 곳을 마련해주는 공감,  
그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곳,  
공감!!



### 신경숙 이사

여기 공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돌봄과 배려가 있는 세상으로  
바뀌 나가게요.

### 한상희 이사

이 사태를 극복하고 닳을 때  
공감과 함께 하는 우리는 분명  
그 이전보다 더 나아져 있을 것입니다.



### 이황희 이사

공감의 존재,  
존재의 공감,  
이 아름다움을 응원합니다.

**노연희** 운영위원

어지럽고 힘든 세상에서도  
공감과 함께할 수 있어서  
든든합니다.



**박영숙** 운영위원

고립되고 관심 받지 못하는 곳에서  
다정함을 실천하는 공감에  
늘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주영진** 운영위원

공감과 함께 가면  
아무리 먼 길도 지척이 됩니다.  
공감과 함께 서면  
고단한 삶에도 희망의 햇살이 비춥니다.  
공감과 함께 하면 알게 됩니다!

**이지은** 운영위원

공감을 통해  
사회에 빛을 내는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늘 감사합니다!  
꺼지지 않는 빛이 되시길

**이경희** 운영위원

항상 누군가의 힘이 되어주는 공감,  
응원합니다!



**정연욱** 운영위원

공감과 함께하는 길,  
작은 걸음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한미미** 운영위원

슬픈 이에게는 위로를,  
억눌린 이에게는 자유를,  
아픈 이에게는 치유를,  
절망한 이에게는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공감의길  
응원합니다!



**이형근** 운영위원

가야 할 길이 아직 머네요.  
천천히, 지치지 않게 가시길!

# 함께하는 사람들 구성원

## 박영아

돌이켜 보면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다사다난했습니다.  
올해도 고마운 분들과 함께하며  
잘 버텨보겠습니다.



## 강지윤

모든 사람의  
평등한 존엄과 가치를 기반으로  
분열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지켜가겠습니다.



## 조미연

단단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 강은희

그대와 우리와 모두의  
안녕을 바랍니다.



## 안주영

일단 꼬박꼬박 밥 먹고 힘내기  
깨끗이 잘 차려 입고 자주 웃기  
....  
좋은 벗들과 좋은 말을 나누기  
곧은 걸음으로 다시 새길을 나서기  
- 박노해, 다시 깨끗이 살아가는 법



## 황필규

최소한의 상식이 깨지고  
폭력과 증오의 연행이  
난무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항상 스스로도 돌이켜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지림

“그 누구의 가정공동체도 타인이나 국가에 의해 폄훼되어도 괜찮은 것은 없다.”  
(대법원 2023두36800)  
- 평등한 가족, 평등한 사회를 향한 한 걸음!



## 임기화

희망이 떠오르면  
절망은 저물기 마련이기에  
오늘도 희망을 품고  
하루를 보냅니다.

## 신옥미

따뜻한 봄을 기다립니다.



## 천지선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 백소윤

## 장서연

희망과 절망을 오가는 롤러코스터 같은 한 해였습니다.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낙관적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동료들 덕분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야겠습니다.



## 조인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대체로 어둡고, 외롭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변화가 온 듯 보였으나 현실은 파도처럼 부서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함께 빛을 밝히며 지나왔기에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빛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 고맙습니다

2024년 11월 9일,  
노란 은행잎이 가득 펼쳐진 공감 사무실은 노랑노랑한 설렘과 기대가 가득합니다.

단풍이 참 좋은 가을,  
공감이 단풍보다 더 고운 기부회원님을 만나는 공감 나눔밥상 날입니다.

노란 은행잎이 가득 채워진 사무실 풍경,  
소박하지만 정성과 감사의 마음만은 넘치게 담은 도시락,  
1년 동안의 공감 이야기를 푹 푹 눌러 담은 공감 구성원들의 여전히 어색한 영상,  
감사한 마음으로 풀어놓는 활동 이야기,  
모두가 만점이기를 바라며 준비한 공감 골든벨,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소중한 기부회원님의 이야기가  
시간과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깝고 또 먼 곳에서 찾아주신 고마운 발걸음과  
마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늘 궁금하고 고마운 분들을 만나는 날을 또 기대해 봅니다.  
기부회원님, 늘 고맙습니다.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희망을 전해 주세요.

공감은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장애인, 난민, 이주여성, 홀리스, 성소수자 등  
세상 주변부에 선 사람들의 삶,  
바로 그 자리에 뛰어가  
법을 말하고 법을 바꾸고자 합니다.

공감은 희망을 그리는 길 위에 있습니다.  
소외된 우리 이웃들이  
잠시 잃었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그 희망을 응원해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희망을 전해 주세요.  
작은 나눔이 우리 이웃에게 큰 힘이 됩니다.

-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공익법인입니다. 공감에 보내주시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연말정산시 비용 인정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기부금 영수증은 1년 동안의 기부액을 합산하여 이듬해 1월 중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공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별도 발행도 가능합니다.
- ✔ 공감 기부회원은 공감이 발행하는 연간보고서와 온라인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 대체 기부단체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 공감에 기부할 경우, 공익활동을 인정받습니다. (3만원/1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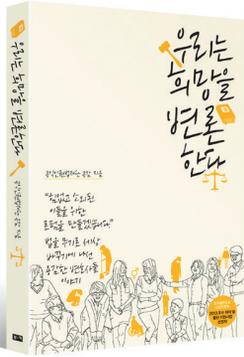
후원하러가기

## 후원 계좌 안내

하나은행 162-910015-36804  
예금주 : (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정기 후원 신청

홈페이지 : [www.kpil.org](http://www.kpil.org)  
(CMS 납부 신청 가능)  
이메일 : [gonggam@kpil.org](mailto:gonggam@kpil.org)



2025년  
공감  
두 번째 책이  
나옵니다

##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지음 / 2013년 12월 9일 발간 / 280쪽 / 14,000원

법의 새로운 사용법을 보여주는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이 책은 2004년도에 등장한 최초의 로펌 ‘공감’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현장의 생생한 에피소드와 함께 들려준다. 척박한 우리 사회 인권의 현주소를 생생하게 전하는 한편, 인권 사각지대를 만드는 법과 제도의 부조리에 대한 날카로운 고발도 담겨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뜨겁게 안고 고군분투하는 공감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한 ‘희망의 기록’이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주소 03058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29-6 (원서동, 북촌청우극장 3층)

전화 02. 3675. 7740 팩스 02. 3675. 7742

이메일 [gonggam@kpil.org](mailto:gonggam@kpil.org)

홈페이지 [www.kpil.org](http://www.kpil.org)